

권화운 “마우스’ 처음엔 제가 범인인줄…두 얼굴 즐거웠죠”

tvN 드라마 ‘마우스’ 종영 화상 인터뷰

사이코패스로 의심받던 ‘성요한’ 역할

“눈 깜빡임조차 고민…의외 모습 발견”

차기작은 로코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초반에는 사이코패스 범인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후에 착한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죠.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서 의미 있고 즐거웠던 작품이었어요.”

배우 권화운은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마우스’에서 살인마 프레데터 ‘정바름’(이승기)과 함께 사이코패스 실형대상이 됐던 ‘성요한’ 역할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안기며 호평을 받았다.

그는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마우스’ 종영 인터뷰에서 “처음 대본을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범인인 줄 알았다. 나중에 이승기 선배님이 범인이라는 말을 듣고 신선했다”고 말했다.

“7부까지 봤을 때 누가 봐도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다시 대본을 보니까 절묘하게 제가 범인인 것 같은데, 범인으로 딱 나오는 장면은 없더라고요. 반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담감도 있었죠. 감독님과 작품을 하기 전부터 대화를 많이 하면서 톤을 잡았어요.”

극 중 ‘성요한’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천재 의사다. 살인마 헤드헌터 ‘한서준’(안재욱)의 자식으로 크며 사이코패스로 의심받지만,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정바름’을 막으려다가 총을 맞고, 자신의 자식인 ‘정바름’을 살리려는 ‘한서준’의 뇌 수술로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는 “‘성요한’이 범인처럼 나와야 하지만, 또 범인이 아니어야 했다. 그 중간을 미묘하게 설정했다. 앞에서 너무 범인 같아 보여도 뒤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범인인 듯 아닌 듯 중간

지점을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너무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너무 슬퍼해도 안 됐죠. 감정을 절제하면서 눈 깜빡임 하나까지도 고민했어요. 눈 깜빡임이 어색하면 ‘성요한’을 의심하는 인물들에게 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동작 하나 미세한 감정 하나도 고민하고 집중해서 촬영했죠.”

살인마의 자식으로 살아온 아픔이 있는 ‘성요한’을 그려내고자 스스로 외로움을 끄집어 내기도 했다. 그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최대한 밖을 안 나가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만났다”고 말했다.

“최대한 고립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죠. 원래 저는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 ‘성요한’을 준비하면서 차분해지고 감정을 절제하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많이 사라졌죠. 이제는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웃음을 찾고 있어요. (웃음)”

권화운은 이번 작품으로 자신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이미지가 사이코패스나 차가운 역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반에 차갑고 서늘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게도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다는 게 재밌었고 보람도 있었어요.”

극 중 헤드헌터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을 터뜨리는 장면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처음엔 감정이 폭발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평생 아픔과 슬픔을 참아온 ‘성요한’이라면 그 와중에도 절제력

이 있을 것 같았다.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애증, 아픔, 분노를 함축해 최대한 절제해서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드라마 ‘의사요한’, ‘SKY캐슬’에 이어 ‘마우스’까지 의사 역할만 세 번째다. 그는 “모두 결이 다른 역할이었다”며 “‘의사요한’은 밝고 통통 튀는 성격이었고, ‘마우스’는 천재 의사지만 아픔과 슬픔이 있는 만큼 차갑고 서늘한 눈빛을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함께 호흡을 맞춘 이승기와 이희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는 “역시 프로다. 선배님은 다르다”고 감탄했다. “두 분 다 분량이 많고 힘든 역할인데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주변 사람들을 다 챙겼다. 이승기 선배님은 연기면 연기, 액션이면 액션 너무 잘 표현했고, 이희준 선배님은 만행으로 후배들을 챙겨주고 이끌어 주면서 많은 힘을 줬다”고 말했다.

또 극 중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경수진에 대해서는 “홍주는 연인이자 엄마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홍주’에게 모성애를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도 모성애를 느낄 정도로 든든하고 따뜻하게 잘 챙겨줬다. 나중에 선배님과 연상연하로 밝은 로맨티코미디를 찍어 보고 싶다”고 웃었다.

지난 2015년 데뷔한 권화운은 ‘마우스’가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했다. 그는 “노력과 열정을 많이 녹여낸 작품이어서 의미가 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 자신에게 뿌듯하다”고 미소 지었다.

“이번 작품을 하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요한’은 사이코패스 아들이라는 편견과 시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 이면의 것들을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권화운은 차기작으로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방민아와 연인 호흡을 맞추는 로맨티코미디 ‘이벤트를 확인하세요’에 출연한다. 그는 “방민아 배우와 귀엽고 아기자기한 케미를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제가 인디밴드 보컬로 나오는데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른다.



많이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장르로는 휴머니즘을 꼽았다. 그는 “휴머니즘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버닝’의 유아인 선배님 같은 역할이나, 저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범인 역할을 한다면 평가 어린, ‘콜’의 전종서 배우 같은 역할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6년여간 작품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감사해요. 왕, 사이코패스, 강박, 의사, 총직한 비서, 군인은 물론 밝은 역할부터 진지한 역할, 바보, 천재 등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었죠. 덕분에 ‘사람 권화운’의 스펙트럼도 넓어졌어요. 항상 대중에게 다음 작품이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요.”

박진영·싸이 보이그룹 주인공은?...‘라우드’ 75명 영상

SBS ‘K팝스타’ 제작진과 함께 준비한 초대형 보이그룹 프로젝트



SBS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LOUD:라우드’가 75명의 참가자를 공개했다.

21일 SBS에 따르면 ‘라우드’는 공식 SNS 및 네이버TV 등을 통해 75명의 참가자 영상을 공

개했다. 이들은 12세부터 22세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돼 있어 눈길을 끈다.

평범한 모습으로 등장한 소년들은 강렬한 비트와 함께 순식간에 180도 변신,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마음껏 드러낸다. 이들은 악보, 기타, 카메라 등 자신을 표현하는 듯한 물건을 들고 있기도.

‘라우드’는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과 피네이션(P NATION)의 수장 싸이가 SBS ‘K팝스타’ 제작진과 함께 준비한 초대형 보이그룹 프로젝트다.

앞서 ‘라우드’는 춤, 노래에 한정하지 않고 작사, 작곡, 악기, 미술, 무용 등 여러 분야에서 재능과 예술성은 물론 한 단계 더 진화한 ‘내면의 매력’을 지닌 참가자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영상 속 75명의 소년들이 가진 특기와 매력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들의 영상은 약 15초의 짧은 분량이지만 본 방송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보이그룹 데뷔 기회를 거머쥔 주인공은 누가 될까. ‘라우드’는 오는 6월5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된다.

‘레드벨벳’ 조이, 리메이크곡 ‘그럴때마다’ 티저 공개

오는 31일 오후 6시 전곡 음원 공개

‘레드벨벳’ 조이가 수록곡 ‘그럴때마다 (Be There For You)’로 따뜻한 울림을 선사한다. 조이는 22일 레드벨벳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스페셜 앨범에 수록된 ‘그럴때마다 (Be There For You)’의 분위기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무드 샘플러와 트랙 포스터,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럴때마다’는 1996년 발표된 토이의 곡을 조이의 색깔로 리메이크, 피아노와 신스, 멜로디언 등 다채로운 건반 악기를 활용한 레트로 신스팝 장르의 곡으로 재해석했다.

이번 스페셜 앨범에는 타이틀 곡 ‘안녕 (Hello)’를 비롯해 1990~2000년대 많은 사랑을 받은 명곡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다.

조이 스페셜 앨범 ‘안녕 (Hello)’은 오는 31일 오후 6시 전곡 음원 공개되며, 6월 3일 음반 발매된다.



매된다.

‘뷰티풀 민트 라이프’, 라인업 공개

1년 8개월 만에 펼쳐지는 야외 음악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뷰티풀 라이프)’이 시기를 조금 늦춘 개최 소식과 더불어 10팀의 출연 아티스트를 발표했다.

뷰티풀 라이프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 이렇게 취소된 바 있다. 그리고 오는 6월, 2년 만의 재개를 앞뒀다. 2019년 10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19’에 이어 무려 1년 8개월 만에 펼쳐지는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다. 특히 2021년 최초로 진행되는 대형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뷰티풀 라이프’는 평소와 달리 관객 동선 최소화를 위해 단 1개 스테이지에서만 공연을 진행한다. 3월(밀집·밀집·밀폐)을 방지하기 위해 야외 공간인 88잔디마당에서 스탠딩존 없이 예년 40% 수준의 거리두기 좌석제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운영한다.

또한 인근 KSPO를 거대한 방역센터로 탈바꿈하여, QR체크와 체온측정부터 국내 공연 최초로 10분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키트를 통한 자가진단까지 진행한다.

이에 더해 주최 측은 1차로 총 10팀의 출연 아티스트 라인업을 공개했다.

26일 토요일은 음원강자들이 주를 이룬다. 고막 남친 ‘폴킴’부터 이하이, 정준일이 출연을 확정했고 페퍼톤스, SURL(설) 등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밴드들도 만날 수 있다.

27일 일요일에는 페스티벌 무대의 최강자라 평가받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소란’부터 밴드 ‘엔플라잉(N.Flying)’, 스탠라장, 콜드(Cold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6월의 잔디마당 무대에 오른다. 4팀의 아티스트가 추가되는 최종 라인업은 오는 6월3일에 공개된다.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은 오는 6월26~27일 양일간 올림픽공원에서 펼쳐진다. 공식 티켓은 오는 25일부터 인터파크, 위메프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온라인 티켓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는 주최사인 ‘민트라이프’ 홈페이지와 ‘뷰티풀 민트 라이프’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 내달 데뷔 8주년 기념공연...‘소우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내달 데뷔 8주년 기념 공연을 연다.

22일 하이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내달 13~14일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팬미팅 ‘BTS 2021 마스터(MUSTER) 소우주’ 공연을 연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팬덤 ‘아미’와 데뷔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공연이다. 특히, 두 번째 날인 14일 공연은 첫날 공연과 세트리스트 일부를 바꾼 월드 투어 버전으로 펼쳐진다.

방탄소년단은 2014년부터 매년 데뷔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팬미팅 ‘마스터(MUSTER)’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기존 콘서트와 팬미팅 실황을 담은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로 팬들을 만났다.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방방콘)’

와 실시간 라이브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 등 온택트(On-Contact) 형식의 공연을 통해서다. ‘BTS 2021 마스터 소우주’ 예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6월13일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다섯 번, ‘핫100’에 세 번 정상에 오르고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지명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슈퍼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1일 발매한 신곡 ‘버터’ 역시 폭발적인 반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101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약 21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56분께 1억뷰를 돌파했다.

